

광양시 출생아 세 자릿수 회복… 33개월 만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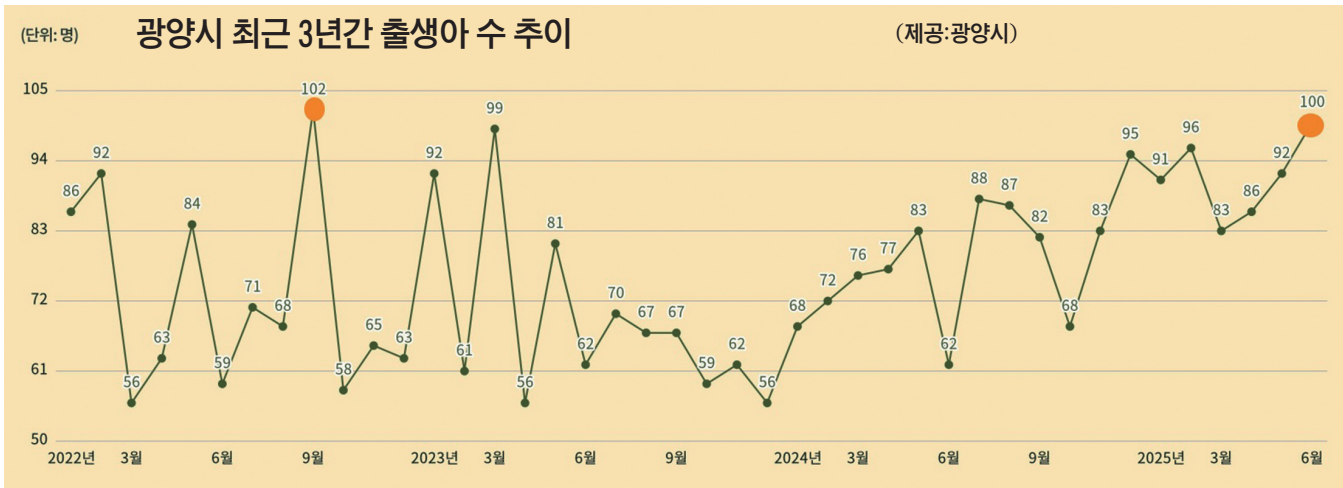
6월 100명… 전년비 61.3% 증가
청년층 정착·주거 안정 뒷받침

전라남도 광양시의 출생아 수가 33개월 만에 다시 세 자릿수의 벽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청년층의 정착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 인구·복지 정책의 효과로, 앞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담은 ‘생애복지플랫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1.3% 증가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출생아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5월에서 6월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며 반등세가 더욱 뚜렷했다.

이에 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계절적 변동이 아닌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증가세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



다 110명(25.1%) 늘어난 548명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는 출생아 수 증가와 함께 합계 출산율도 개선되는 등 인구지표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6명에서 2023년 0.99명으로 떨어졌으나, 2024년에는 1.09명으로 반등했다. 전국 78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 순위는 2023년 9위에서 2024년 5위로 상승했다.

광양시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청

년층의 정착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 인구·복지 정책이 있다는 봤다. 특히 지난해 6월 광양시의 이차전지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온 청년 일자리 및 정주 여건 지원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일자리부터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정주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인구 정책을 추진 중인데, 대표적으로 광양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 개

설, 포스코 맞춤형 취업교육 운영(누적 947명 취업), 청년농업인 대상 광양형 스마트팜 준공(2개 동) 등 청년 일자리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다.

주거 부문에서도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200~300만원), 전남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지원(월 최대 40만원, 1년간),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2026년 1월 착공 예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월 최대 30만원)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 중심 정책과 더불어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걸친 지원으로 출산율 반등도 뒷받침하고 있다. 시는 365일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 영유아 야간·공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올해 안으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6호점을 개원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생애복지플랫폼을 통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약 370개의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 4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항영숙광양시출생보건과장은 “출생률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6월 출생아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지역사회와 광양시의 인구정책 모두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기준선이 됐다”며 “이 흐름이 일시적인 상승세에 그치지 않도록 생애복지플랫폼을 더욱 발전시켜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스타트업 콘서트’ 15일 개그맨·사업가 고명한 초청 강연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15일 오후 7시 금호동 백운교육센터 강당에서 ‘2025년 광양 스타트업 콘서트’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양 스타트업 콘서트’는 전라남도, 광양시, 포스코홀딩스가 공동 추진하는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년 및 예비 창업자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과 기업가 정신을 전파하는 창업 문화 확산형 콘텐츠로 기획됐다.

올해 총 3회에 걸쳐 개최되며 첫 행사에서는 개그맨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고명한(사진)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고 대표는 방송 활동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 창업 컨설팅,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회복탄력성으로 많은 예비 창업자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고 대표는 ‘창업, 이겨놓고 싸워라’(부제 :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를 주제로, 반복된 실패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업에 성공한 여정을 유쾌하고 진솔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2회차(9월), 3회차(11월) 콘서트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성공 창업가들을 초청해 지역 내 창업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최근 리뉴얼된 광양제철소 어울림체육관 피트니스센터에서 임직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진상면 지계마을 60여 가구에 LPG 보급사업 착공

전라남도 광양시는 ‘진상면 지계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이 2025년 영산강·섬진강수계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이달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수어댐 수변구역 내 진상면 지계마을 60여가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경제적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총사업비 7억9000만원(기금 60%, 시비 40%)을 투입해 LPG 저장시설, 배관망, LPG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연료를 보급할 방침이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연료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연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내년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사업 공모

전라남도 광양시가 오는 25일까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2026년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일 기준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양시 문화예술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특정 단체, 종교 홍보성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와 문화예술과(061-797-2734)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제철소, 체육시설 리뉴얼… 임직원 건강 증진

광양제철소가 포스코 및 그룹사, 협력사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내 복지시설인 포스코 어울림체육관 피트니스센터의 리뉴얼을 진행했다.

9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어울림체육관은 2011년 6월 준공된 복지시설로, 2~3층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 포스코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룹사, 협력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 평균 이용자 수는 약 750여명에 달한다.

이번 리뉴얼은 준공 이후 14년 만에 진행된 대규모 시설 개선으로 노후 운동기구 교체, 프리웨이트존 확장, 탈의실 사물함 교체 등 다양한 개선이 이뤄졌다.

광양제철소는 노후화된 머신들의 고장이 잦아 불편하다는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존의 머신을 철거하고 세계 3대 헬스 브랜드로 손꼽히는 해머스트

헬스사의 최신 머신 32대를 도입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어울림체육관 피트니스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광양제철소는 오는 14일까지 남녀 탈의실에 설치된 236개의 사물함과 비품을 교체하는 등 이용 편의성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강동욱 포스코 어울림체육관 피트니스센터 관장은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우수하고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2년간 연 4%

전라남도 광양시가 오는 17일부터 ‘2025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이 신규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2년간 연 4%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25일 진행된 1차 접수에서 총 170개소에 대한 대출을 실행했다.

이번 2차 지원은 시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의지를 반영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광양시에서 사

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투자경제과(061-797-3351)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2차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